### 3) 교량비(橋梁碑)

다리를 놓거나 중수하고 그 내용을 새긴 교량비가 논산지역에는 상당수가 있다。 초포교비(１６７４)、 은진미교비(１７３１)(사１７)、 수탕석교 사적비(１６７５)、 석성 수탕교비(１７４０)、 석성수탕석교중수비(１８９８)、 1차 논산석교 중수비(１８４６)、 2차 논산석교 중수비(１８５８)、 원항교비(１９００)등이 있다。

### 4) 암각(岩刻)

논산지역에는 대둔산 수락 계곡과 강경 옥녀봉에 다수의 암각문이 있다。

수락계곡에는 「탁영」(濯纓)과 「인지」(仁智) 두 암각문이 있다。

옥녀봉의 바위에는 자경이 １６㎝인 「잠영대」(蘸影臺)와 자경이 ２５㎝인 「산주」(汕住)、 자경이 １６㎝인 「반조암」(返照岩)、 자경이 １８㎝인 「귀암」(龜岩)、 자경이 ３６㎝인 「영포대」(影泡臺)、 자경이 １８㎝인 「감당 옥롱」(鑑塘 玉壟)、 자경이 ２２㎝인 「옥녀봉」(玉女峯)、 자경이 ２４㎝인 「위용대」(爲容臺)가 있고 강경포구의 조수의 흐름을 계산한 「해조문」(解潮文)이 있다。

강경 팔괘정 암벽에는 자경이 ４４㎝인 「몽괘벽」(夢挂壁)(사１８)과 자경이 ２１㎝인 「청초안」(靑草岸)이 있다。

연산 임리 옛 돈암서원 자리의 산자락 바위에 자경이 ４５㎝인 「돈암」(遯巖) 암각문이 있다。

상월 학당리 박증 유허지에 자경이 １７㎝인 「암천처사조대」(巖川處士釣臺) 암각문이 있는데、 이것은 박증이 은거하면서 낚시를 즐기던 곳에 윤동원이 글씨를 써서 새겨 놓은 암각문이다。

이상은 논산지역 비갈을 중심으로 나타난 금석문을 살펴보았다。 금석문에 관한 비갈의 용어 문제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필자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되도록 우리나라 정식적인 용어를 쓰려고 노력했으며、 비갈의 분류도 내용보다 비갈의 형태에 중점을 두고 분류하려고 하였다。

논산지역의 비갈은 다른 지방보다 월등히 그 수가 많다。 그리고 조선 초기부터 있어 시대적으로 변천해 오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 보이는 원갈 형식이 조선 중기부터 방비 형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첨석(갓비)의 형식은 묘비에서 １６３６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신도비는 １６５９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첨석의 형식은 이후부터 계속하여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갈의 석질이나 크기、 비문 격식은 여기에서 다루지 아니 하였다。

이천칠년 가을　　玄影齋에서　醉石 쓰다。

논산지역은 귀부를 갖춘 신도비는 보이지 않고, 이수(사13)에 농대석을 갖춘 신도비가 있는데, 김국광 신도비(1489), 김겸광 신도비(1492), 김계휘 신도비(1604), 김장생 신도비(1634)(사14), 이향령 신도비(1664) 등이 있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이수 대신에 가첨석을 사용하는 신도비가 등장하는데, 김집 신도비(1659)(사15)부터 이다. 가첨석에 농대석을 갖춘 신도비는 윤진 신도비(1776), 윤순거 신도비(1811), 박동민 신도비(1818), 윤전 신도비(1821) 등이 있다.

신도비문을 짓고 쓰는데는 찬자와 서자, 전자가 따로 되어있다. 비문은 찬자가 찬한 글을 서자가 쓰고 전액은 전자가 써서 비신 상단에 횡으로 새기게 된다. 전액의 양식은 중국에서는 이수 중앙에 전액을 새기는데 비하여 조선에서는 비신 상단에 횡으로 새기게 되어 우리 형식화 되었다.

### 2) 사적비(事蹟碑)

사적비에는 서원의 묘정 앞에 비를 세우고 서원의 건립 년대와 내용과 배향 인물을 추앙하는 글을 새겨 넣은 묘정비가 있다. 논산지역의 묘정비로는 황산서원(현 죽림서원) 묘정비(1664), 돈암서원 묘정비(1669), 만죽 서선생 묘정비(1867) 등이 있다.

사찰을 세우거나 중수한 내용을 새긴 사적비와 중수비가 있다. 논산지역에는 쌍계사 중수비(1739)와 관촉사 사적비(1743) 돈암서원 이건비(1903) 등이 있다.

선인들의 유적을 기념 할만한 곳에 비를 세우고 태어났거나 거주했던 내용을 그 업적과 더불어 찬양하여 세운 유허비가 있다. 논산지역에는 성삼문 유허비(1673)가 있다.

사찰에 세우는 탑비는 논산지역에서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개태사나 쌍계사에 고승들이 많이 다녀갔으나 탑비는 없고 사적비와 중건비가 있다.

논산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비들의 비가 있다. 병자호란 당시 주인을 따라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주인의 시신을 찾아 고향으로 모셔와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노비가 있다. 연산의 충노 영상 귀상비(1853)(사16)와 은진에 충노 무작금비(1668), (1877)가 있다. 충노 영상 귀상비는 이민진의 정려 옆에 세워져 있고, 충노 무작금비는 김수남 묘소 아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김수남 정려 옆에 있다.

받을 때 묘갈이거나 묘표로 받았으나, 비를 세울 때에는 묘표와 묘갈의 구분 없이 비의 크기나 세울 위치와 비의 형태 등을 임의로 하여 세웠다. 비문은 묘갈로 받고 가첨석을 사용하여 세웠기 때문에 묘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묘비로 부르는 것이 타당 할 것 같다.

이형손 묘갈은 1496년에 김일손(金馹孫) 찬으로 세웠으나 오랜 풍우로 상부가 일실되어 1793년 가첨석을 갖추어 원문을 다시 써서 세웠다. 묘갈의 전형적인 형태인 복연엽에 농대석을 갖춘 묘갈로는 이장생 묘갈(1525)(사7)과 서익 묘갈(1732)이 있고, 이수에 농대석을 갖춘 묘갈로는 이장경 묘갈(1537)(사8), 김임 묘갈(1561), 김호 묘갈(1583), 윤창세 묘비(1634), 김은휘 묘갈(1660), 김성휘 묘갈(1663) 등이 있다. 김임 묘갈은 이수에 귀부를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 족보를 새긴 것이 다른 비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논산지역에서 갓비라고 부르는 가첨석에 농대석을 갖춘 묘비로는 양천 허씨 묘비(1636)(사9)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이 윤황의 묘비(1660)(사10)인데 넓은 가첨석에 커다란 농대석 위에 세운 묘비는 크기나 규모가 풍비이어서 신도비 크기와 양식으로 세워져 있다. 명칭도 윤창세의 묘비와 윤황의 묘비에서 「묘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창세 묘비(11)는 이수에 농대석을 갖춘 비인데 묘비문은 묘비로 되어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가첨석에 농대석을 갖춘 묘비는 묘갈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원두형의 묘갈로는 김철산 묘갈(1721)(사12)이 있는데 오랜 풍우로 상부가 마모되어 1848년에 가첨석에 농대석을 갖춘 묘비로 다시 세워 놓았다.

중국에서는 왕이나 공경대인은 묘(廟)에 비(碑를) 묘(墓)에는 갈(碣을) 썼다고 한다.

③ 신도비(神道碑)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신도비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고려 때까지는 고승들의 탑비가 주류를 이루고 개인의 묘비로는 간략한 묘표와 묘지명이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는 태조의 건원능 신도비로 시작되지만, 개인들이 신도비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성령대군 이종의 신도비(1418)이다. 중국에서는 진、송 때부터 천자나 제후들이 신도비를 세웠다. 신도비라고 부르게 된 것은 묘역에는 풍비를 세우기가 어려워、동남 방향이 신도(神道)이어서 그 방향으로 큰길가에 세우고 신도비라고 부르게 되었다. 세종 이후에는 왕의 신도비는 세우지 않기로 정하고 종2품 이상의 고관만이 신도비를 세우게 하였다. 신도비문은 「신도비명 병서」(神道碑銘 幷序)로서 주인공의 선조、관직、공적、업적 등을 자세히 쓰고 명으로 운문을 쓰기 때문에 비의 규모가 크고 당당하다. 신도비 형식은 당의 신도비 양식에 따라 이수와 비신과 귀부를 갖추어 세웠다. 그러나 귀부의 형식에서 벗어나 농대석을 높게 만들고 연화무늬나 다양한 조각을 하여 비신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 1) 묘비의 종류

① 묘표(墓表)

묘의 봉분 앞에 묘의 주인공을 표시하기 위해 작은 돌에다 새겨 세운 비를 묘표라고 한다、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원래는 문체의 명칭이었으며、벼슬에 무관하게 묘 앞에 세우는 묘비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세웠으나 현존하는 것은 희귀하며 조선초기까지 작은 비석 전면에만 작은 글씨로 묘표를 나타내고 있다。고려말에 나타난 귀접이 규수(圭首)형이 조선 후기까지 묘표에 나타나고 있다。논산지역에서는 성화18년(1482)에 세워진 송문림(宋文琳)(사1)의 묘표가 규수형의 비신을 하고、선성부원군 노사신이 찬한 음기가 있다。1662년에 세워진 김집(金集)의 묘표(사2)와 1670년에 세워진 박증의 묘표와 1874년에 세워진 기계유씨의 묘표가 규수형을 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묘표들은 원두형이거나 복연엽형에서 가첨석을 갖춘 형식으로 변해왔다。조선초기부터 나타난 묘표의 형식 중에 연잎을 엎어놓은 모양의 복연엽형이 있다。논산지역 복연엽 묘표로는 이철근 묘표(1580)(사3)、김종윤 묘표(1583)、김국광 묘표(1722)등이 있다。원두형 묘표로는 김유휘 묘표(1668)(사4)、박종원 묘표(1672)、서열 묘표(1694)、서정수 묘표(1694)、윤순거 묘표(1724)、윤전묘표(1724)、윤수묘표(1736)、등이 있다。

팔작 비붕형의 가첨석을 사용한 묘표로는 윤황의 묘표(1651)(사5)와 송처자 묘표(1668)(사6)가 있는데、송처자 묘표는 비신이 82㎝ 크기의 작은 비신에 가첨석을 얹고 70㎝ 크기의 농대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이는 동춘 송준길이 자기 어린 누이의 요절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비문을 짓고 써서 세운 앙증맞은 묘표 이다。이러한 형태의 묘표는 묘표와 묘갈의 구분이 없이 봉분 앞에나 묘역에 세우는 묘비의 전형으로 굳혀졌다。전면에는 망자의 관명、명호를 대자로 새기고、후면엔 사적을 새긴 음기를 쓰는데 운문(명)을 하지 않았다。

② 묘갈(墓碣)

묘갈은 묘비의 일종으로 죽은 자의 공적이나 사적을 명과 함께 새겼으며 규모는 신도비보다 작으며、정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자의 묘에 썼다。그러나 묘갈은 구분하는데는 문체로도 하나 그보다도 비의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방비 원갈(方碑 圓碣)로 보아、비가 사각형이면 비(碑)로、비신의 윗 부분이 둥근 모양이면 갈(碣)이라고 하였다。갈의 둥근 머리부분에 이수(螭首)를 조각하기도 하고 운문(雲紋)을 조각한 것도 있고、연잎을 덮어놓은 모양의 복연엽형과 단순하게 둥글게 깎은 모양의 원두(圓頭)형 등이 있다。조선 중기 이후부터 팔작 지붕형인 가첨석을 한 비가 등장하면서、원두형인 묘갈로 부르기보다 일반적인 명칭인 묘비로 부르고 있다。조선시대의 묘제로 보아 비문을

梵宇荒凉宮殿開　黃昏蝙蝠亂飛來　侵階野草逢秋老　滿砌寒花着雨摧
古籫尙經麗歲月　斷碑曾歷幾風雷　丹靑剝落銷香火　須信昆明有劫灰

(절집은 황폐하여 처량하고 어진각의 문짝은 열려있구나。
황혼이 깃들어 박쥐 떼가 날아들고、계단까지 자란 풀은
가을빛에 시들어가는구나。섬돌에 가득 핀 늦가을 꽃은
비를 맞아 꺾기우고、오래된 철확은 일직이 고려의 세월이
베어있구나。잘라진 비석에서 이미 수많은 풍상을 보겠으며、
단청은 벗겨지고 퇴락 했으며 향불은 사위어 가는구나。
이제야 곤명지 바닥에 겁회가 있음을 믿겠노라。
겁회-불가에서 말하는 세계가 파멸될 때 일어나는 큰불로 생긴 재。)

논산지역 금석문의 범위는 대부분이 비갈류인데、일제 이전의 １９１０년을 하한선으로 조사하였다。종류별로 보면 신도비가 １０기、묘갈이 ２５기、묘표가 ２０기、사적비가 ９기、교량비가 ８기、암각문이 １５개소가 있다。비갈을 년대별로 나누어 보면、１４００년대에 신도비가 ２기 있고、１５００년대에 묘갈이 ５기가 있고、１６００년대에 신도비가 ４기、묘갈、묘표가 ２０기、묘정비가 ２기가 있다。１７００년대에 신도비가 ３기、묘갈、묘표가 ５７기、기타 ３기가 있다。１８００년대에 １５기、１９００년대에 ６기 정도인데、한말이어서 비를 적게 세운 것 같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연산 지역으로 낙향한 려말의 사족들이 논산지역에 세거 하면서 명문 거족이 되고 그들의 비갈이 많이 있다。특히 연산지역의 광산 김씨와 노성 지역의 파평 윤씨의 비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느 타시군 보다 금석문이 많은 편이다。

비는 묘비、묘정비、유허비、사적비、중수비、탑비、정려비、효렬비、선정비 등이 있다。

묘비는 묘소에 세우는 비갈류를 총칭한 명칭인데、조선 중기 이후부터 묘표와 묘갈이 구분 없이 사용되어、형식 구분이 애매해지고、묘표와 묘갈의 양식이 구별하기 어렵게 혼용되어 그 때부터 일반적인 명칭인 묘비로 표현하는 경우가 생기고、후대에 오면 비의 양식이 비신에 가첨석을 얹고 농대석 위에 세우는 조선식으로 변천되어 묘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묘비에는 묘표、묘갈、신도비등이 있다。

# 論山地域 金石文攷

## 1。 금석문의 의의

금석문이란 어떤 사적이나 글을 돌이나 금속류에 새겨 넣은 글을 말한다。 금석문의 내용은 돌이나 금속에 새겨져 있어 쉽게 지워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장구한 세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그 시대의 인문이나 사회상을 볼 수 있어 역사학、 문자학、 서예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금석문 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갈류는 거기에 나타내려는 대상이 분명 하고、 찬서자(撰書者)를 밝히고 있으며、 비를 세운 연월일이 새겨져 있어 사료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금석문의 발생 현상을 보면 중국은 금문이 먼저 나오고 석문인 비갈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게 석문이 주류를 이루고 금속류는 희소 할 뿐만 아니라 금문은 후에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비、 중원비、 신라 진흥왕 순수비 등은 전적류가 남아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 2。 논산지역의 비갈의 종류

논산지방의 비갈는 대부분이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철을 사용한 철비도 있으나 논산지역에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고대에는 손쉽게 구 할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하는 예가 있으나 보존 기간이 짧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논산지역은 삼국 이전의 비는 물론、 삼국시대의 비와 고려시대의 비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요충지로 군사、 교통、 산업이 활발하던 곳이요、 고려시대에도 왕건의 전승지인 천호산과 호국사찰인 개태사、 은진의 관촉사등이 있으나 비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만 개태사에 고려시대의 비가 있었다는 김시습의 시만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